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브라질 레터

고금리에 따른 경기 둔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 경기활동지수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남
- 고금리로 주요 산업 전반의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올해 성장률 둔화가 예상됨
- 둔화되는 경기 흐름을 감안할 때, 9월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은 높아질 전망

브라질 경기활동지수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

최근 브라질 중앙은행이 발표한 6월 경기활동지수(IBC-Br)는 전월 대비 0.64% 감소하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양호한 성장 흐름을 유지했지만, 최근 들어 산업생산과 서비스업 모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농업을 제외한 경제 전반에서도 모멘텀 약화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2분기 들어 경기 활동 둔화가 두드러지면서, 2분기 GDP 성장률의 둔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고금리로 둔화된 경가지표를 감안할 때, 올해 GDP성장률은 둔화될 전망

기준금리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비와 투자 활동이 점차 위축되고 있다. 경제 전반에서 모멘텀 약화가 확인되고 있으며,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민간소비 회복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올해 3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지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면서 금리 인하 속도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립금리 수준(9~10%)에 보다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50bp 수준의 금리 인하가 필요했지만, 물가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하 폭은 25bp에 그치고 있다. 베이비 스텝(25bp)의 점진적인 금리 인하 기조와 2분기 이후 둔화되는 경가지표를 감안할 때 올해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인 2.5%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둔화된 성장률을 감안할 때, 9월 추가 금리 인하에 힘이 실릴 전망

최근 물가상승률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경가지표는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둔화된 물가와 경가지표를 감안할 때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장기 기대인플레이션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현재와 같은 경기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시장의 관심은 재정 건전성에 집중될 전망이다. 룰라 정부 이후 재정지출이 증가했으며, 특히 10월 대선의 영향으로 최근 재정적자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가 중단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약 2.0%)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으며, 헤알화 역시 약세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성장률 둔화에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경우, 금리 인하 폭이 50bp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국채 금리 하락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Compliance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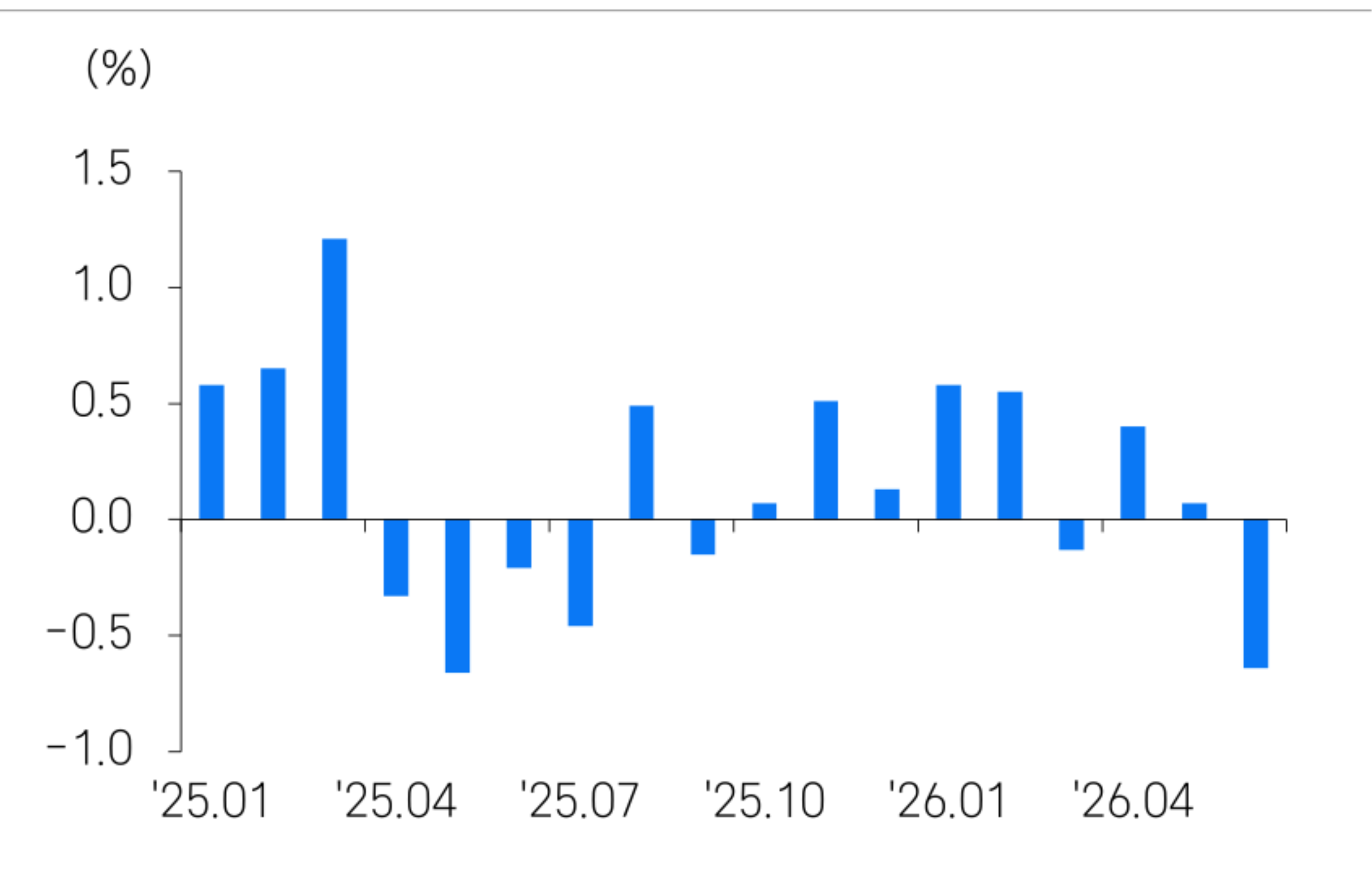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브라질 금리 및 환율 변화

구분	2026-08-11	2026-08-19	변화율
기준금리 (%)	14.00	14.00	0 bp
국채 2년 (%)	14.05	14.16	+11 bp
국채 10년 (%)	14.64	14.89	+25 bp
헤알/달러	5.18	5.21	+0.7 %
원/헤알	273	268	-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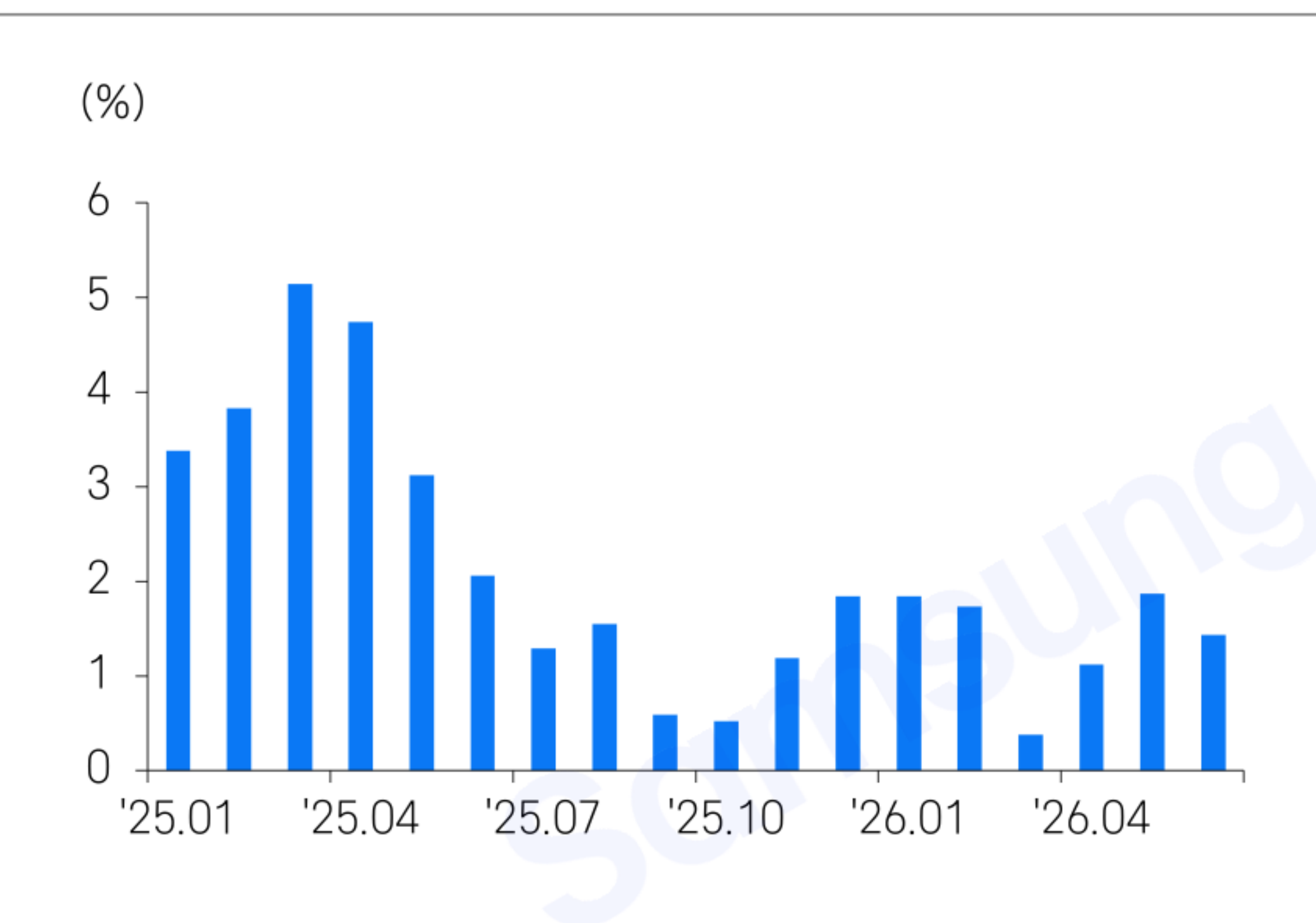
참고: 전일자 뉴욕 종가 기준
자료: Infomax

6월 경기활동지수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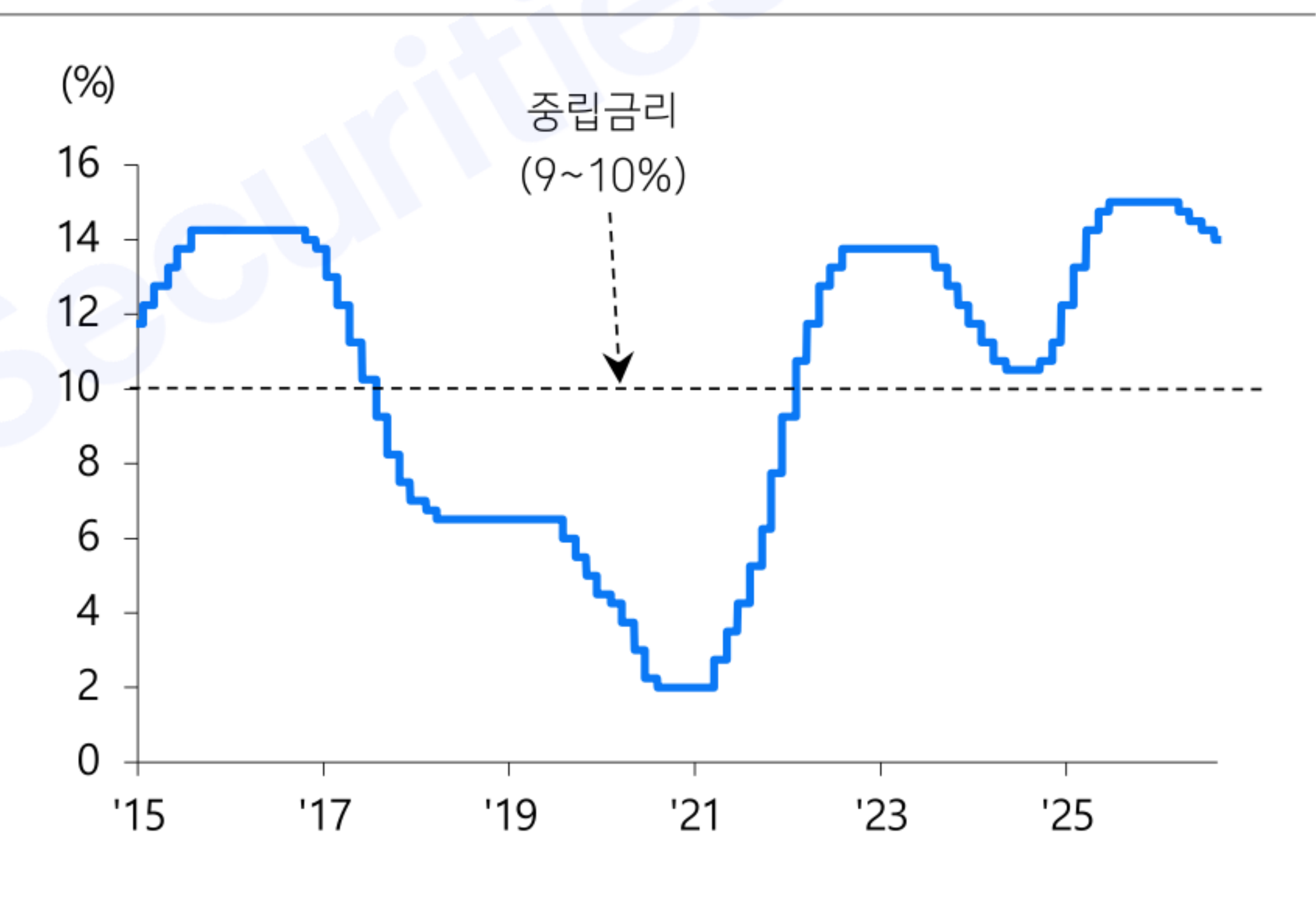
참고: 경기활동지수(IBC-Br) 전월 대비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고금리 영향으로 경기활동지수는 작년 하반기 이후 크게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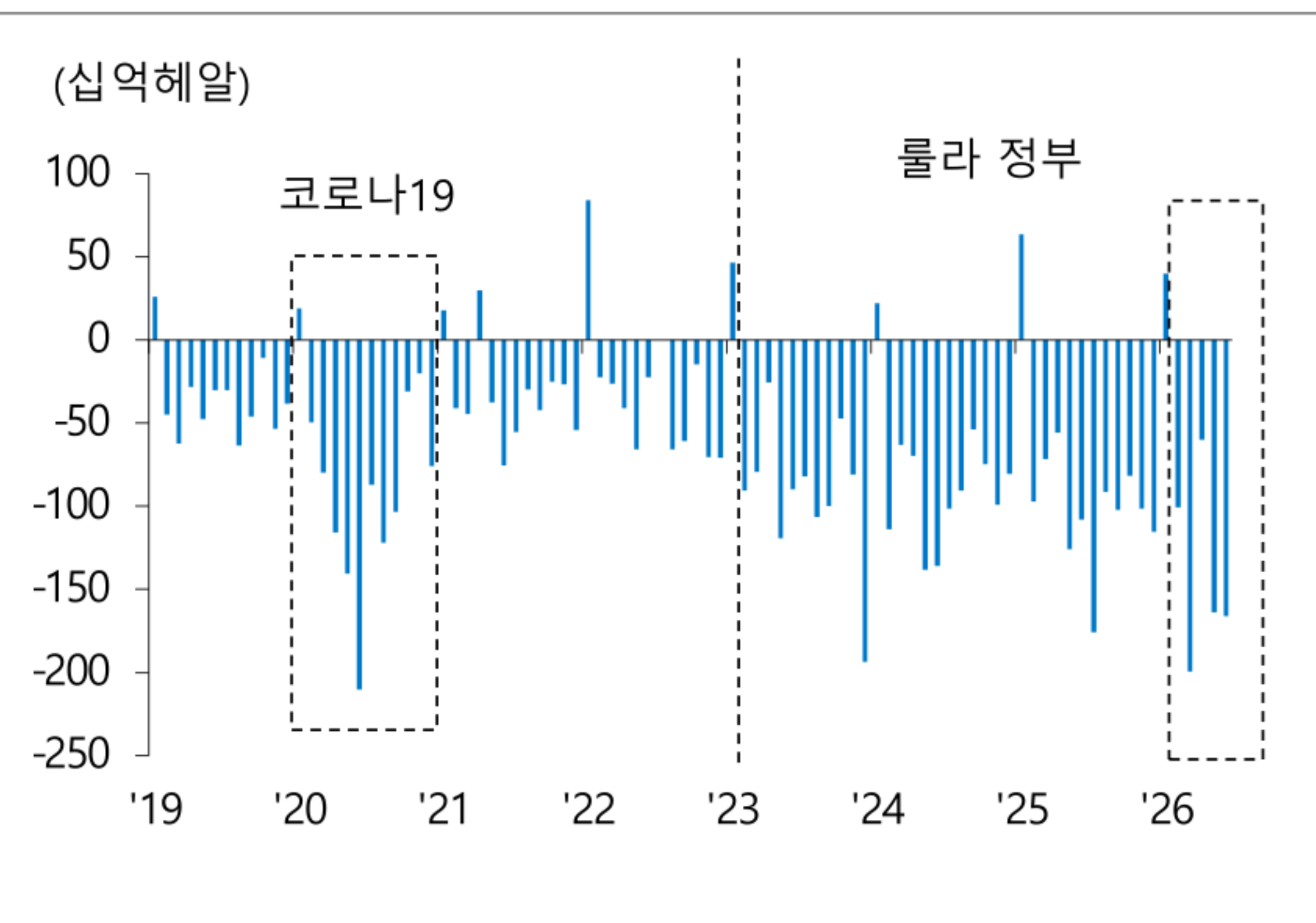
참고: 경기활동지수(IBC-Br) 전년동월 대비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중립금리(9~10%) 대비 높은 기준금리 수준으로 고금리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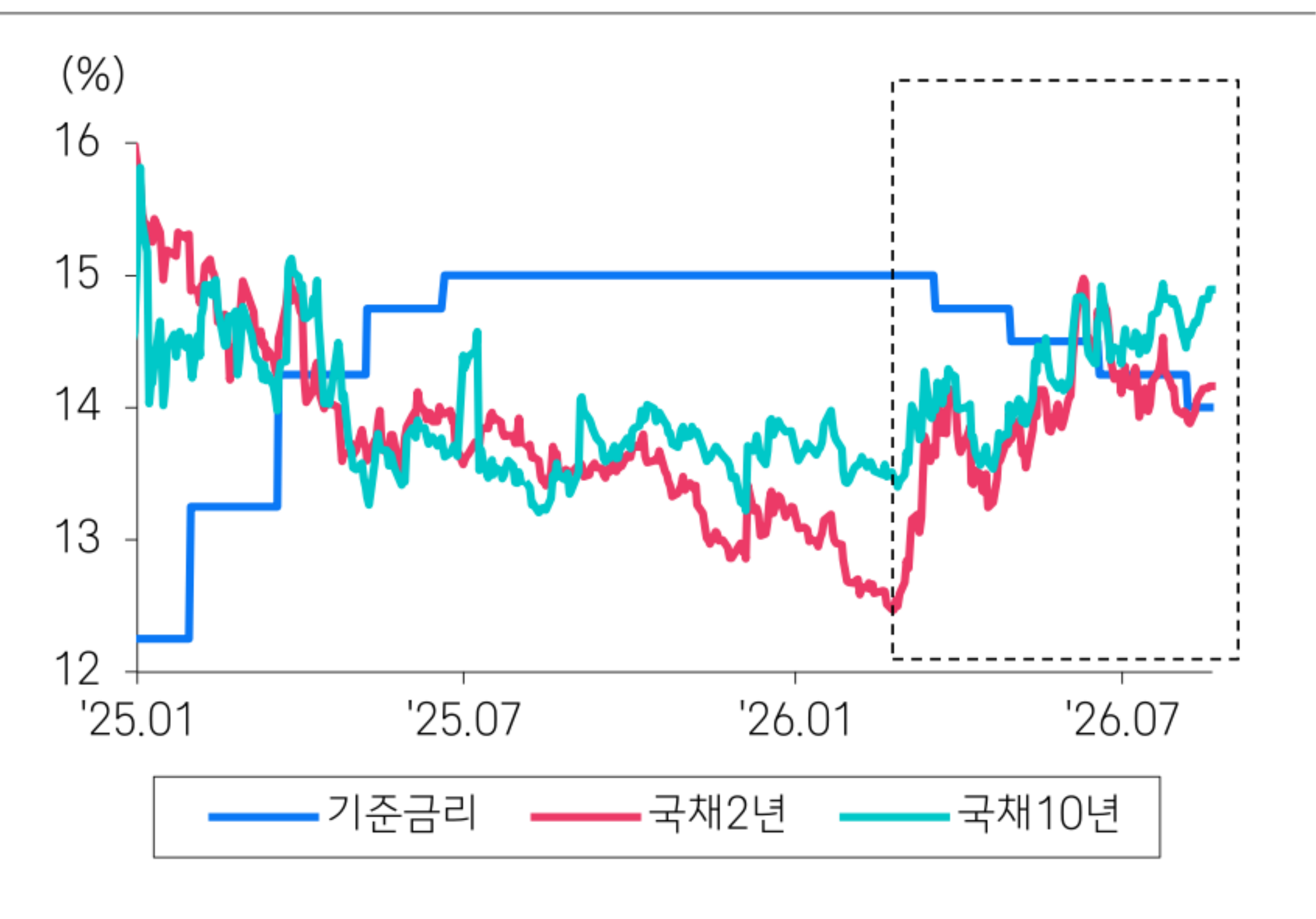
참고: 브라질 기준금리
자료: Infomax

룰라 정부 이후 재정지출이 증가했으며, 올해 재정적자 심화



참고: 브라질 재정수지(월별)
자료: Bloomberg

미-이란 사태로 금리 인하 폭이 기대보다 약해 국채 금리 상승



참고: 브라질 기준금리, 국채 2년 및 10년물 금리
자료: Infomax

Samsung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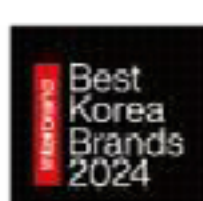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